

수 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발 신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문의 :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 010-6732-4438, 사드저지전국행동 조승현 팀장
010-2440-5749)

제 목 사드 배치 관련 질의서 전달

날 짜 2018. 10. 31. (총 3 쪽)

사드 배치 관련 질의서 전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 관련 국정감사 답변에 대한 사드철회평화회의의 질의서를 전달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

▣ 문의 :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010-6732-4438), 사드저지전국행동 조승현 팀장(010-2440-5749)

사드 배치, 문재인 정부의 진짜 계획은 무엇입니까?

수신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발신 사드철회평화회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드 배치 진행 상황에 대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9월 8일, 사드 임시 배치 직후 “이번 사드 배치는 안보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감안한 임시 배치입니다.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여러 번 약속드린 바와 같이 보다 엄격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결정될 것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사드 ‘정식 배치’를 기정사실로 전제한 것으로서, 사드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결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국방부는 ‘사드 완전 배치를 위한 부지 공사’라는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지난 4월 국방부는 ‘미국 측이 희망한다면 사드 체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임시 배치’ 입장이 사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정경두 장관은 ‘사드 체계 효용성은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9월 2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를 맡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공군참모총장이던 정경두 장관에게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질의했을 때, 정경두 장관은 “효용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이번 국정감사 답변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1.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겠다’는 정경두 장관의 답변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던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3년 전 국정감사에서는 ‘효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지금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사드 배치에 대한 향후 문재인 정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사드철회평화회의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